

종합 건강 검진자에서 관찰한 한국인에서 대사 증후군 빈도

전남대학교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간호부, 심장센터

김효경, 정명호, 이숙자, 장현숙, 김혜영, 정민경, 이정자, 김주한, 김원, 안영근, 조정관, 박종춘, 강정채

연구배경: 대사성 증후군은 복부비만, 인슐린 대사이상,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등 여러 심혈관계 관련인자가 공존하며, 적극적인 대사 증후군의 조절은 당뇨병 및 고혈압에 의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 나라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대사 증후군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연구방법: 2002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종합건강 증진 센터를 내원하였던 평소에 특별한 질환의 병력이 없는 건강한 검진자를 대상으로 대사성증후군에 기준에 해당되는 인자, 즉 159 mg/dL이상의 중성지방, 40 mg/dL이하의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110 mg/dL 이상의 공복 시 혈당, 130/85 mmHg이상의 혈압, 복부 비만 중 3가지 이상의 인자를 가진 검진자들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

년도	2002	2003년	계
전체 검진자 수	4230	2302	6532
5가지 해당자 수	31(0.5%)	34(0.5%)	65(1%)
4가지 해당자 수	219(3.4%)	136(2.1%)	355(5.5%)
3가지 해당자 수	698(10.6%)	388(5.9%)	1086(16.5%)
합계	948(14.5%)	558(8.5%)	1506(23.0%)

결론: 전체 건강 검진자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인 23%에서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어서, 향후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대사 증후군에 대한 관심을 필요함 것으로 생각되었다.

가족성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 1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 백병원 내과학교실

박정하, 조경임, 김대경, 김두일, 김동수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은 주로 여성에서 흔하며 20-30대에 호발 하는 드문 질환으로 폐 소동맥의 '조직학적 변화'를 보이면서 점차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폐동맥 압이 상승하는 질환이다. 흔히 우심실 부전으로 진단 3년 내에 우심실 부전으로 사망한다고 보고 되어 있으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이 보고 된 이후 가족 내에서의 발생이 보고 되었지만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은 유전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 가족 내에서 분자 생물학적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보고 되고 있고 저자들도 1례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1 32세 된 여자 환자로 2년 전부터 흉부 불쾌감 있어 왔으며 내원 3일 전 실신 및 흉통 있어 내원하였다. 흉부 방사선 소견 상 심 비대 이외엔 큰 특이소견 없었으며 혈액검사나 일반 생화학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은 없었다. 심장 초음파 소견에서 폐동맥 협착 및 심낭삼출이 관찰 되었으며 심도자 소견 상 수축기 폐동맥 압이 110mmHg으로 증가된 소견 보였으나 폐 모세혈관 폐기 압력은 정상이었다. 이후 외래 추적 관찰 하였고 1997년 사망하였다. 증례 1-2 20세 남자 환자로 노작성 호흡곤란 및 흉통 있어 내원 하였고, 어머니(증례 1-1)가 1997년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었다. 혈액 검사 상 혈색소 17.8g/dL, 헤마토크리트 50.1% 로 다혈증 소견 보였으며, 생화학적 검사에서는 특이소견 없었다. 흉부 방사선 소견 상 좌심방 연의 국소적 용기 소견이 관찰 되었고 심전도상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 소견과 전벽 과 하벽의 허혈 소견이 보였으며 심 초음파 소견 상 수축기 폐동맥 압이 100mmHg으로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폐 기능 검사는 정상 이었고 폐 관류 환기 스캔에서는 폐 색전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현재 환자는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 진단 하에 외래 추적 중이다.